

장거리 자동전화(DDD) 시대가 열린다!

3월 이달의 기록 온라인 서비스



진주우체국 공전식 전화실(1950년대)

국가기록원은 서울~부산 간 장거리 자동전화(DDD, Direct Distance Dialing) 개통일(1971. 3. 31.)을 맞아, 3월 『이달의 기록』 주제를 '장거리 자동전화(DDD) 시대가 열린다!'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3월 26일(수)부터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기록물은 동영상 20건, 사진 13건 등 총 33건으로, 1950~80년대 통신시설의 확충, 전화자동화 과정 등을 담고 있다.

- 통신망 복구 공사 착공(1956), 전화도수세 실시(1961), 확장되는 통신시설(1964), 한국의 전기 통신(1974), 전국 전화자동화 시대(1987) 등 동영상 20건
- 대전전화국 공전식 전화 개통식(1957), 전화교환원 업무 광경(1961), 서울-부산 간 직통전화 가동시험(1971), 전화 1000만 회선 돌파 기념식(1987) 등 사진 13건

1950년대에는 6.25전쟁으로 훼손된 통신시설을 복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통신망을 복구하고 근대식 통신시설로 바꾸기 위해 외국 기술자를 초청하기도 했다. 그 결과, 서울 중앙전화국 서국은 자동식 8천 5백 회선을, 대전전화국은 공전식 3천 회선을 복구·개설하였다.

1960~70년대에는 경제 성장, 소득 증대에 따라 전화 수요가 급증하면서 통신시설이 확장되었고, 통화 제도 및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서울 광화문·동대문·성북·신촌, 부산 초량·새 회선



서울중앙전화국 서국 전화교환원 모습(1957)



대전전화국 공전식 전화 개통식(1957)



동대문전화국 전화 9국 개통식(1963)

개통, 영등포·인천의 자동전화 개통 등 통신시설이 대폭 확충되었다. 특히 지금은 볼 수 없는 전화교환원이 수동으로 전화를 연결하는 모습이 이채롭다.

또한 전국적으로 전화 수요가 늘면서 전화도수제*가 도입되고, 시외통화 번호가 변경되었는데, 이에 대한 안내영상을 볼 수 있다. 폭증하는 시외전화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시외통화를 장거리 자동전화(DDD)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즉, 1971년 서울~부산 간 DDD가 개통되면서 전국 전화자동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전화도수제 : 발신 통화 횟수에 따라 요금 부과

1980년대에는 농촌까지도 전화 자동화와 통화권 광역화가 이루어지고, 1천만 전화 회선이 공급되어 1가구 1전화 시대를 맞는 등 통신선진국으로 발돋움하였다. 시외전화 자동화는 1971년 서울~부산 간 DDD 개통을 시작으로 1987년 전국으로 확대·완료되고, 전화가입 회선도 1천만이 넘어서는 등 전화는 생활필수품으로 대중화되었다.



신촌전화국 전화 32국 개통식(1966)



전화 1000만회선 돌파 기념식(1987)

공직의 길, 좁은 문을 뚫어라 4월 이달의 기록 온라인 서비스



5급 공무원 공개채용 응시자 접수표 배부 광경(1976)



5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원서 접수 행렬(1973)



고등고시 시험장 모습(1955)

국가기록원은 국가직 9급 공무원 필기시험일(4. 19.)을 맞아, 4월 『이달의 기록』 주제를 '공직의 길, 좁은 문을 뚫어라'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4월 17일(목)부터 홈페이지(www.archives.go.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기록물은 동영상 4건, 사진 17건, 문서 4건 등 총 25건으로, 1950~90년대 공무원 시험 원서접수 현장, 시험장 광경과 수험생 모습 등을 담고 있다.

- 제10회 고등고시(1958), 5급 공무원 선발(1961), 5급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원서 접수(1975), 공무원 시험 원서접수 현장(1978) 등 동영상 4건
- 고등고시(1955), 3급 공무원 등용시험(1960), 사무관 구두시험 장면(1960), 행정과 고등고시(1962), 5급 공무원 채용시험 원서접수 행렬(1973) 등 사진 17건
- 고등고시령(1949), 보통고시령(1948), 제1회 고등고시 공고(1949) 등 문서 4건



공무원 시험 광경(1960)



5급 공무원 시험 현장(1961)

공무원 시험 원서접수 기록에서는 공직의 길에 도전하는 응시자들의 뜨거운 열기와 관심을 엿볼 수 있다. 5급(현재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원서를 접수하기 위해 접수처 밖까지 늘어선 긴 행렬과 삼삼오오 모여 수입인지(收入印紙)를 붙이는 모습, 원서접수 요원들의 바쁜 손놀림은 온라인으로 원서접수를 하는 지금은 볼 수 없는 광경이다.

필기시험 기록에서는 시험장 가득히 감도는 긴장감과 수험생들의 비장함, 시험을 마친 홀가분함을 느낄 수 있다. 고등고시(1963년부터 3급 공채시험, 현재 5급), 5급(현재 9급) 등 응시 급수에 상관없이 배운 지식을 모두 쏟아내며 신중하게 문제를 푸는 모습, 머리띠를 두르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이채롭다. 특히, 경찰관이 시험지를 나누어 주고 감독하는 모습, 시험장 벽에 붙여 놓은 문제지와 세로쓰기 답안지 등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광경이다.

공직으로 들어서는 마지막 관문인 면접시험 기록에는 수험생들의 긴장한 표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특히, 1960년대와 1980년대의 면접시험 광경은 20년의 시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별반 다름이 없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 외 정부수립 직후 공무원 임용제도의 근간으로, 1949년에 제정된 고등고시령(高等考試令)과 보통고시령(普通考試令), 이에 따라 치러진 제1회 고등고시*와 보통고시** 공고가 실린 관보를 볼 수 있다.

* 고등고시 : 일반행정 고급공무원 외교관 등 임용자격 시험, 1981년 5급 시험으로 개편

** 보통고시 : 일반 공무원의 임용자격 시험, 1981년 7·9급 시험으로 개편



사무관 구두시험 장면(1960)

온 세상에 자비가 가득, 부처님 오신 날

5월 이달의 기록 온라인 서비스

국가기록원은 석가탄신일(5.6)을 맞아, 5월 『이달의 기록』 주제를 ‘온 세상에 자비가 가득, 부처님 오신 날’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홈페이지(www.archives.go.kr)를 통해 서비스 하고 있다.

석가탄신일은 부처님의 탄신을 축하하는 날로, 야간통행금지가 있던 시절에도 크리스마스와 함께 ‘통금’이 해제될 만큼 특별한 기념일이었다. 이를 위해 다채롭게 열렸던 연등(燃燈)·제등(提燈) 행사, 탑돌이 등 봉축행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기록물은 동영상 11건, 사진 20건, 문서 1건 등 총 32건으로, 1950~70년대 석가탄신일에 열린 법요식, 제등 등 사찰 내·외부에서 펼쳐진 봉축행사, 공휴일 지정 기념 행사 등을 담고 있다.



석가탄신일 기념행사 모습(1954)



부처님 오신 날 가장행렬 모습(1958)

- 석가여래탄신일(1957), 석가세존성탄(1966), 호국법회(1975), 부처님 오신 날 (1975) 등 동영상 11건
- 석가탄신일 기념행사(1954), 부처님 오신 날 가장행렬(1958), 석가탄신일 기념 연 등행사(1964), 호국법회(1975), 부처님 오신 날 시가행진(1976), 제등행렬(1977) 등 사진 20건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중개정령(1975) 등 문서 1건



부처님 오신 날 기념행사(1958)



석가탄신일 기념 연등행사 모습(1964)



불기 2522년 부처님 오신 날 행사(1978)



석가탄신일 제등행렬 모습(1977)

사찰에서 열린 봉축행사 기록에서는 전국의 사찰과 암자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 연등행사 모습을 볼 수 있다. 부처님께 절을 하고 정성껏 연등을 다는 신도, 할머니 손을 잡고 연 등행사를 즐기는 아이들, 불을 밝힌 연등 아래에서 탑돌이를 하는 신도 등 석가탄신일을 경건하게 기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세월의 흐름과 함께 달라진 연등 모양도 흥미롭다.

일반 시민들과 함께한 봉축행사 기록에서는 신도, 학생 등이 펼친 가장(假裝)행렬, 제등행렬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사찰에서 법요식 등 봉축행사가 끝나면 신도들은 거리로 나와 시민들과 함께 석가탄신일을 축하했다. 흰 코끼리 모양의 조형물을 실은 트럭과 꽃마차가 가장행렬을 펼치고, 범종·팔각가마·흰 코끼리 등 다양한 모양의 등불을 들고 부처님의 탄신을 축하하는 제등행렬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석가탄신일이 공휴일로 제정되고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된 1975년에는 북악 스카 이웨이에서 봉축제가 열렸고, 칠보어린이합창단이 청와대를 찾아 호국안보를 위한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1975년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제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중개정령」이 실린 관보와 이를 경축하기 위해 불교회관에서 열린 호국법회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한국 축구, 월드컵에 도전하다! 6월 이달의 기록 온라인 서비스



2002 한일 월드컵 4강(한국 대 독일) 시작 전 애국가 제창(2002 상암월드컵경기장)



2002 한일 월드컵 한국 대 이탈리아전 거리 응원 인파(2002)

국가기록원은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의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출전과 월드컵 진출 60주년을 맞아, 6월 『이달의 기록』 주제를 '한국 축구, 월드컵에 도전하다!'로 정하고, 관련 기록물을 6월 13일(금)부터 홈페이지(www.archives.go.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기록물은 동영상 15건, 사진 16건 등 총 31건으로, 1950~1990년대 월드컵 본선 진출을 향한 도전 모습, 2002년 한·일 월드컵 모습 등을 담고 있다.

- 일본을 이기고 돌아온 한국 축구단(1954), 한-일 축구전(1960), 한-호주 축구 2차전(1973), 스포츠-한국 본선 진출(1986), 꿈은 이루어진다(2002) 등 동영상 15건
- 유고와 한국의 축구(1961), 제13회 멕시코 월드컵 최종 예선 한-일전 승리 후 태극기를 든 한국 선수들(1985), 제16회 프랑스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한-일전 (1997), 2002 월드컵 개막식 및 경기·응원 모습(2002) 등 사진 16건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은 지난 60년 동안 수많은 예선전과 국민들의 뜨거운 응원 덕분에 총 9회, 8회 연속 월드컵 진출이라는 성과를 일구어냈다. 우리나라는 1954년 스위스 월드컵 예선에서 일본을 누르고 본선에 처음 진출하였다. 하지만, 해외 출전경험 부족, 열악한 경제 사정으로 경기 하루 전에 스위스에 도착했고, 여독을 풀 시간도 없이 첫 경기를 뛰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1954년 이후 우리나라는 월드컵 본선 출전 기회를 좀처럼 잡지 못했다. 첫 공산국가(유고)와의 예선전과 광복 후 처음 국내에서 열린 일본과의 예선전이 치러진 1962년 칠레 월드컵, 호주와의 경기에서 아쉽게 저 본선 진출에 실패한 1974년 서독 월드컵 예선전의 안타까운 장면 등이 이어졌다.

32년을 기다린 후 우리나라는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본선에 출전하게 되었으며, 그 후 8회 연속 본선 진출을 이루어냈다. 특히, 1997년 가을 도쿄에서 열린 프랑스 월드컵 예선전 한-일전에서의 승리는 '도쿄대첩'이라 불릴 정도로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준 장면이었다.

월드컵을 향한 도전과 열정은 2002년 월드컵 개최와 4강 진출이라는 성과로 이어졌고, 이제 월드컵은 온 국민이 열광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세계의 축구강호들과 겨루어 4강 진출이라는 월드컵 출전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면서 국민들에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희망을 주었으며, 경기장과 시내 곳곳의 거리를 가득 메운 열두 번 째 선수, '붉은악마'의 응원도 경기 못지않게 열광적이었다.



▲ 한국 축구단 환영식(1954 서울운동장) : 제5회 스위스 월드컵 예선에서 일본을 이기고 처음으로 본선 진출

▼ 유고와 한국 축구 경기(1961, 효창운동장) : 제7회 칠레 월드컵 예선 공산권 국가와의 최초의 경기



▼ 제10회 서독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A조 결승전 한국 대 이스라엘전 관중 모습(1973, 서울운동장)



▼ 제11회 아르헨티나 월드컵 예선 한국 대 호주전(1977, 서울운동장)



5월 기념일과 기록, 스승의 날 행사 관련 기록 온라인 서비스



어버이 날 스승의 날 카네이션 달아주기(1978)

지난 5월 15일은 33회째 맞는 스승의 날이었다. 스승을 존경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교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스승의 날을 맞아 1970~90년대 기념행사 등 관련 기록을 서비스하고 있다.

스승의 날은 1963년 충남지역 청소년적십자 단원들이 '은사의 날'을 정하고 사은행사를 개최한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다. 1964년 청소년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는 5월 26일을 '스승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1965년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날짜를 변경하였다. 이후 한때 중단되었다가 1982년 교권확립의 해를 맞아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기록물은 1970~90년대 스승의 날 기념행사 등을 담은 것으로, 문서 2건, 영상 9건, 사진 8건 등 총 17건이다.



매동초등학교 스승의 날 행사 모습(1990)



제10회 스승의 날 기념식(1991)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1982), 제1회 스승의 날 행사계획(1982) 등 문서 2건
- 박목월 시인 고마우신 선생님 선정(1972), 제1회 스승의 날 및 사도헌장 선포(1982), 제5회·제9회 스승의 날(1986, 1990), 벽지의 모범스승(1992), 표어(1985, 1994) 등 영상 9건
- 제10회 스승의날 기념식(1991), 각급 학교 스승의 날 기념행사(1978, 1990, 1994, 1996) 등 사진 6건

1982년,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제정한다는 내용, 제1회 스승의 날 행사 계획을 담은 국무회의 안건을 비롯하여 1973년 스승의 날과 통합하여 치러진 제5회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식, 10년 후인 1982년 법정기념일로 부활한 제1회 스승의 날 및 사도헌장 선포식, 제5회·제10회·제15회 스승의 날 기념행사 광경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1972년 '고마우신 선생님'으로 선정된 박목월(당시 한양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시인의 모습, 도서벽지 등에서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모범교사들의 사례도 살펴볼 수 있으며, '스승은 제자사랑, 제자는 스승공경' 등 당시 활용되었던 표어도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스승의 은혜를 노래하는 어린이 합창단, 감사의 큰 절을 올리는 여학생들, 옛 은사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는 희끗한 머리의 중년남성 등의 모습에서 스승의 날에 대한 의미와 사제 간의 정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제13회 배화여자중학교 스승의 날 행사(1994)



제15회 스승의 날 행사(1996)



제16회 스승의 날 기념행사(1997)

6월 기념일과 기록,

‘6·25전쟁일’ 관련 기록 온라인 서비스



경남도청 광장에서 열린 ‘6·25항공총결기일’ 행사(1951)



‘6·25멸공통일의 날’-부산 행사장 전경(1952)



6·25의 날 학생들의 거리행진 모습(1955)

올해는 6·25전쟁이 발발한지 64주년이 되는 해이다. 6·25전쟁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는 전쟁이 발발한 이듬해인 1951년부터 시작되었다. 1951년 ‘6·25 항공총결기일(抗公總決起日)’, 1952년 ‘6·25 멸공통일의 날’, 1953년 ‘6·25 북진통일의 날’이란 명칭으로 국민행사가 진행되었다. 1954년부터는 별도의 명칭 부여 없이 ‘6·25의 날’로 기념식이 거행되기 시작했다.

1962년부터는 대규모 국민행사 보다는 각 단체나 지역별로 6월 25일 즈음한 시기에 반공옹변대회, 전시회,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가 거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6·25전쟁의 명칭은 초기에는 ‘사변(事變)’, ‘동란(動亂)’, ‘적침(敵侵)’ 등으로 불리다가, 1957년 ‘6·25사변’으로 통일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1973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정시 ‘6·25사변일’이란 명칭으로 기념일에 포함되어 매년 기념식과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여러 행사가 거행되었다. 2013년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6·25 명칭에 맞추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6·25전쟁일’로 변경되었다.

국가기록원은 ‘6·25전쟁일’ 64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관련 기록물을 6월 25일부터 국가기록원 홈페이지(<http://www.archives.go.kr>)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기록물은 1950~1990년대 기념행사를 담은 것으로, 문서 4건, 영상 8건, 사진 8건 등 총 20건이다.

- 6·25 항공총결기일 행사에 관한 건(1951), 6·25사변 제3주년을 계기로 한 국민행사 기준에 관한 건(1953) 등 문서 5건
- 상기하자 6·25(1953), 6·25 제4주년 기념행사(1954) 등 영상 7건
- 6·25 항공총결기일 기념식(1951), 멸공통일의 날 행사장 전경(1952) 등 사진 8건



6·25기념 웅변대회(1958)



6·25사변 제11주년 기념 여배우들 거리행진(1961)



6·25사변 제11주년 기념 의병부대 거리행진(1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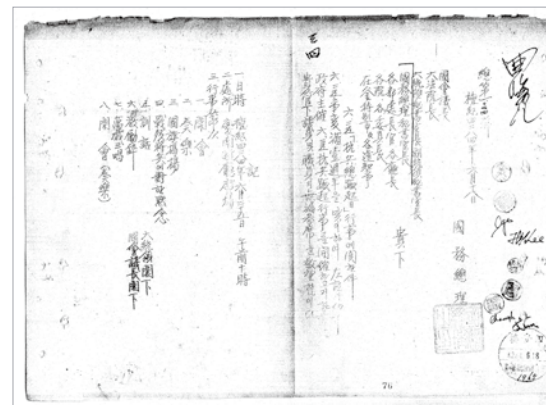


6·25 참전 군용기 전시회(1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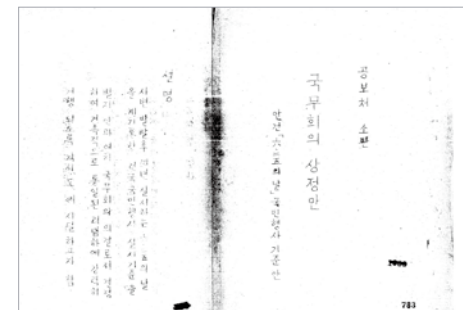
1951년 최초의 6·25 기념행사를 ‘6·25 항공총결기일(抗公總決起日)’로 명칭을 통일하고 대대적인 국민행사를 개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 휴전협상이 진행중이던 1953년에는 ‘6·25 북진통일의 날’로 정하고 대규모 시위를 계획한 문서를 볼 수 있다.

특히 1961년 행사에서는 국가재건운동과 보조를 맞추어 신생활복을 입은 여배우들의 행진 모습이 담긴 사진이 이채롭다. 1970년에는 전쟁의 폐해를 딛고 발전을 거듭하는 대한민국 모습을 보여주는 문화영화 상영, 반공옹변대회, 전시회, 음악회 등 다양한 기념행사 모습을 볼 수 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전후세대에게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기념행사, 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행사 모습도 만날 수 있다.



6·25항공총결기일 행사에 관한 건(1951) : 6·25 기념행사에 관한 내용으로, 국민행 소요령, 선전계몽행사 요령 등을 담고 있는 문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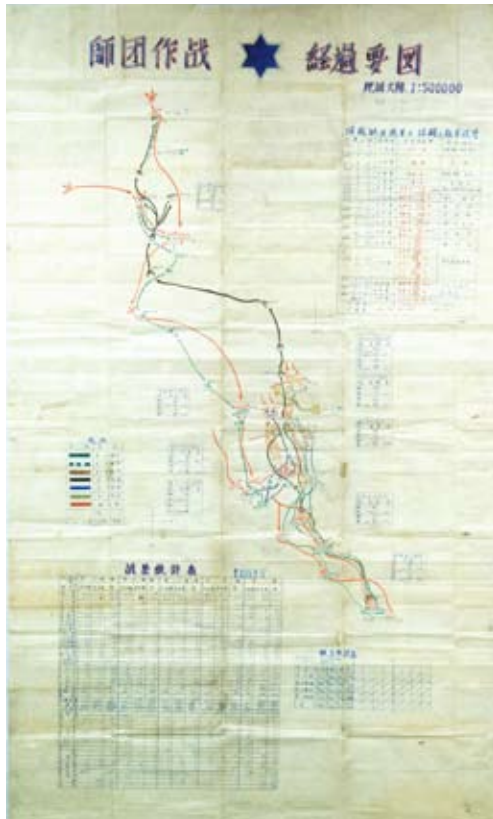
6·25기념행사 국무회의 부의의 건(1954) : 1954년 5월 25일 상정한 국무회의 안건으로, ‘6·25의 날’ 국민행사 개최 기준에 관한 문서이다.



6·25사변 호칭통일에 관한 건(1957) : 국무회의 상정 안건으로, 그동안 ‘사변’, ‘동란’, ‘전란’, ‘적침’ 등으로 사용하던 6·25전쟁일의 명칭을 ‘사변’으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기록원, 6·25전쟁 관련

희귀 기록물 복원 공개



『국군 제6사단 작전명령 제31호~32호 : 춘천전투』 사단작전 경과 요도

국가기록원은 6·25전쟁 64주년을 맞아 6·25전쟁 관련 기록물을 복원·복제해 일반에 공개했다.

이번에 국가기록원이 복원해 공개한 기록물은 6·25전쟁 주요 10대 전투로 꼽히는 『국군 제6사단 춘천전투』(1950.6.25.~30), 『국군 제9사단 백마고지전투』(1952.10.6.~15) 작전지도와 작전명령서를 비롯해 『6·25사변피납치인사명부(六·二五事變被拉致人士名簿)』(1951 추정)이다.

『국군 제6사단 작전명령 제31호~32호』(1950.6.25.~30)는 '춘천전투'의 작전명령서와 작전지도, 각종 일람표, 전쟁대비 방침 등을 담고 있다. 제31호~32호 작전명령서는 당시 적정의 현황과 각 연대별로 사단장 명의(육군대령 김종오) 작전계획을 시달하는 내용 등을 필사하여 작성하였다.

작전지도 중 '사단작전 경과요도(師團作戰 經過要圖)'는 6.25일 개전 당일부터 8월 7일까지 아군과 접촉한 적군 대호, 전투상황별 전과통계, 피해통계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세히 그렸다. 부록에는 각종 일람표(출동병력, 장비 등)를 비롯해 통계표(탄약소모, 전사 상자 등), 인민군 편성표, 적의 병기 성능표, 역습과 방어계획 및 작전지구내 주민철수 계획까지 사전에 전쟁 발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6사단의 전투준비 태세는 당시 수도권을 포위하려던 북한군의 작전계획에 커다란 차질을 빚었고, 국군이 한강방어선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춘천대첩'으로 명명될 만큼 '춘천전투'는 한국 전쟁 초기 전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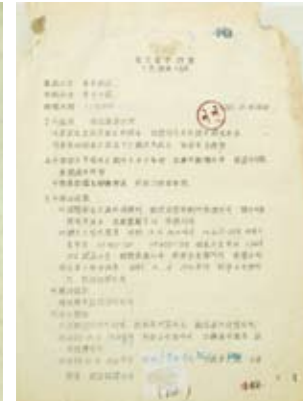
『국군 제9사단 작전명령 제85호~제90호』(1952.10.6.~15)는 '백마고지전투'의 작전지도와 명령서이다. 백마고지전투는 6·25전쟁 당시 국군이 중공군의 공격을 받아 10여 일간 12차례의 쟁탈전을 반복하고 일곱 번이나 주인이 바뀌는 혈전을 거듭해 가장 치열한 전투지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백마고지 작전명령서는 저급한 갱지에 등사로 인쇄를 해서 배포하였고, 작전지도 역시 약식으로 간단하게 그려져 있어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엿 볼 수 있다. 백마고지전투는 춘천전투를 이끌었던 김종오 장군이 9사단장으로 부임하여 승리로 이끌었고, 그 결과 우리 국군은 철의 삼각지대(강원도 평강군·철원군·김화군)일각인 철원지역을 계속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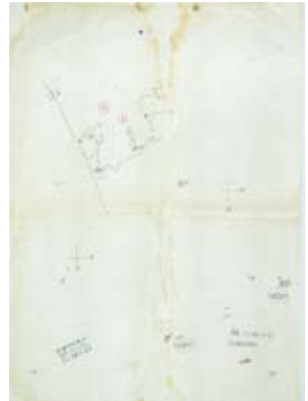
『6·25사변피납치인사명부(六·二五事變被拉致人士名簿)』는 1951년 1·4 후퇴 이후 부산에서 6·25전쟁 당시 북한에 의한 피납치자 가족단체에 의해 생산되어 1951. 9. 1. 신익희(申翼熙) 국회의장에게 청원문과 함께 제출되었다.(※이 기록은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료 가치가 높다고 판단



『국군 제6사단 작전명령 제31호~32호 : 춘천전투』 작전지구 주민 철수계획 요도



『국군 제9사단 작전명령 제85호~90호 : 백마고지전투』 작전명령 제 85호 각 연대별 백마고지전투』 작전지도



하여 구입하였으나 훼손 상태가 심각해 국가기록원에 조기 이관. 복원처리 완료 후 위원회에 복제본 제공 예정.)

당시 북한에 의해 납치되었다고 파악된 서울 및 인근 지역 약 2,300여 명의 이름·직장·연령·주소·피해월일을 한 자로 기재하였다. 표지에는 “국회의장 신익희 각하(國會議長 申翼熙 閣下)”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 기록물은 6·25전쟁 남북사건 발생 직후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인사 가족들에 의해 직접 작성된 명부로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신익희 유품에서 발견되었다는 관련 증언과 연구를 통해 원본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훼손 상태가 심각하여 판독과 이용이 어려운 상태였으나 이번 복원처리를 통해 안전하게 영구보존될 것으로 기대된다.



『6·25사변피납치인사명부(六·二五事變被拉致人士名簿)』 표지



『6·25사변피납치인사명부』 : 표지 안쪽에 남북인사 생사 확인을 요구하기 위해 국회에 청원한다는 신문기사 스크랩

2016년 ICA 서울총회 공식 홈페이지 오픈

199개국이 참가하는 ICA 총회가 2016년 9월 한국에서 열린다. '아카이브, 조화와 우애'를 주제로 개막식, 학술회의, 전시회 등 기록문화축제가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은 참가자 편의 및 총회 정보제공을 위해 ICA 서울총회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 하였다. 홈페이지를 통해 총회 개요, 한국 기록문화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진행되는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ICA 서울총회 공식 홈페이지

- URL : <http://www.ica2016.com>
- 구성 : ICA 연혁 및 총회 등 일반사항, 서울총회 프로그램, 학술논문 등록·제출 기능, 한국 문화 명소, 커뮤니티 등
- 향후 일정
 - 2015년, 홈페이지 고도화(등록시스템 구축), 초록 접수 등
 - 2016년, 조기등록(4~6월), 일반등록(6~9월) 등

대한제국 말기 행정시설 건축 도면 소개, 『일제시기 건축도면(Ⅶ)』 해제집 발간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Ⅶ) 표지



내부청사 신축설계도

국가기록원은 근대 건축분야에 대한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학술연구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일제시기 건축도면(Ⅶ)』 해제집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건축도면 해제집은 국가기록원 소장 도면 중 1906년 이후의 대한제국기 및 일제강점기 행정시설 도면을 해제하고 주요 도면 350매를 수록하였다.

해제집에 소개된 도면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때 사라진 건물이기 때문에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특히, 1907년에서 1910년에 걸친 행정시설의 신축 계획과정과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도면이 수록되었다. 덕수궁 남쪽에 계획된 의정부 청사가 1906년 통감부 설치 이후 탁지부 청사로 바뀌는 과정, 중추원 청사와 탁지부 건축소의 계획과 구체적인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도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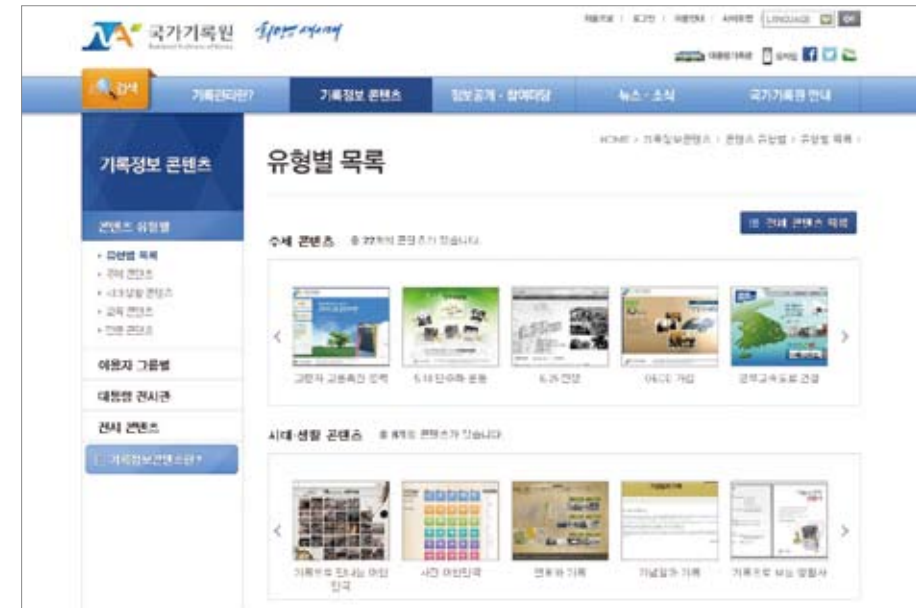
이외에 광화문 육조거리에 있던 내부 청사(후 경기도청), 남산 북쪽의 저동에 있었던 농상공부 청사 도면, 전환국의 후신으로 용산에 설치된 탁지부 인쇄국 관련 도면 등이 수록되었다.

각지의 이사청(理事廳) 도면 등 통감부의 행정시설 도면도 수록하였다. 1908~1909년 신축된 이사청 청사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유행하던 의양풍(擬洋風)의 양식목조 건물로 계획되어 당시 행정시설의 계획과 역할에 대한 일제의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방 행정시설인 도청, 부청, 군청의 시기별 건축상과 구체적인 계획방식도 잘 보여준다. 도청(道廳)은 대부분 기존 감영의 한옥을 증개축하여 사용하다가 1920년대 이후 신축되었는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1910년대 한옥을 개수하여 사용하였던 도면이 확인되었다.

국가기록원은 서울대학교 건축사연구실(전봉희 교수)과의 협력으로 2007년부터 연차사업으로 모두 22,883매의 건축도면을 정리하였으며,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와 해제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 해제집에 소개되지 않은 도면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일제시기 건축 도면 컬렉션'(<http://theme.archives.go.kr>)에서 볼 수 있다.

국가기록원, 기록정보 서비스·웹접근성 대폭 강화



국가기록원은 국민이 원하는 기록을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콘텐츠를 확대 구축하고, 장애인·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손쉽게 국가 기록물에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모바일 기록정보콘텐츠 웹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록정보 온라인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인 이 사업은 온라인·모바일 기록콘텐츠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소장 기록물을 정보자원화하여 더욱 광범위하고 다양한 종류의 기록물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웹접근성을 높여 장애인 노인 등 정보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웹 서비스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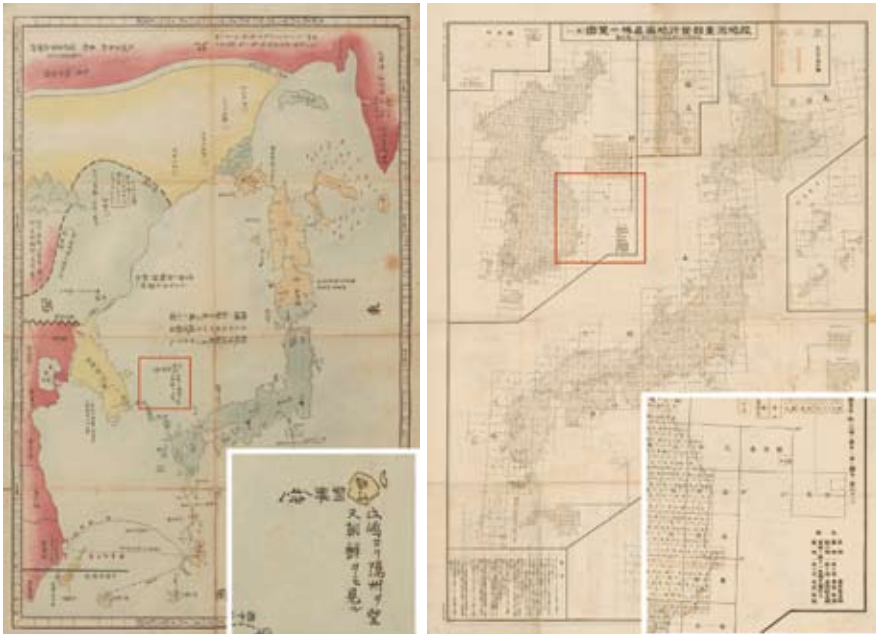
이에 따라 열람 수요가 많거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기록물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생산배경이나 소장정보를 함께 볼 수 있도록 구축된 온라인 기록정보콘텐츠 중 『여성기록 전시 콘텐츠』를 새로 만들고 『연표와 기록』, 『사진 대한민국,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국정분야별 검색』,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등 5편을 확대하며, 모바일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기록정보콘텐츠 중 『사진 대한민국』을 확대 구축한다.

또한 신규 및 확대 구축되는 기록정보 콘텐츠와 관련된 기록물 3,000건,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총 1만 9천여 건 중 3·1운동 관련 판결문 약 4,500건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할 수 있도록 별도의 DB를 구축한다. 웹접근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표준이 적용되지 않은 온라인 기록정보 콘텐츠 중 사용량, 중요도 등을 고려한 5편을 선정해 개선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기록정보 콘텐츠의 온라인 및 모바일 열람서비스 확대되고, 기록정보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이 고도화되어 기록정보의 자원화와 편리한 서비스로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 및 학술연구 등 각 분야의 국가기록 활용 확대 및 기록문화 조성으로 국민의 역사역량 향상 및 알권리 증진으로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고,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이 불편 없이 기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접근성이 개선되어 차별 없는 기록정보 서비스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기록전시관 ‘독도 코너’ 개설



삼국집양지도(1785, 국립해양박물관)

육지측량부 발행 지도구역 일람도(1936, 독립기념관)

우리나라 동쪽 제일 끝에 위치한 섬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우리의 역사와 문화권에 편입된 후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져 온 우리의 고유영토이다. 하지만 일본은 1990년대 후반 교과서 왜곡을 본격화하고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부의 주장과 왜곡된 자료들을 근거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전시관 관람객들에게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인식을 전하기 위해 전시관(정부대전청사 2동 1층) 내 ‘독도 코너’를 개설하였다. ‘독도 코너’는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 뿐만 아니라 외부소장 기록물을 포함하여 총 37점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기록물로는 독도가 명시되어 있는 고문헌인 『삼국사기(1145)』, 『신증동국여지승람(1531)』와 대한제국 시기의 『대한전도(1899)』,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특히, 독도 영토 표석은 흔히 울릉도 주민이 조직한 독도의용수비대가 세운 것으로 알려졌으나 『독도 표석 건립에 관한 건(1954)』을 통해 전후 혼란 속에 외부무, 내무부, 경상북도, 울릉군 등 범정부 차원에서 건립된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 에도시대의 유명한 학자 하야시 시헤이(林平)의 저서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에 수록된 『삼국집양지도(1785)』, 일본 정부 지도 제작 기관인 육군 참모본부 직속 육지측량부에서 발행한 『육지측량부 발행 지도구역 일람도(1936)』 등의 지도를 소개하여 일본 또한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기록으로 보는 독도 코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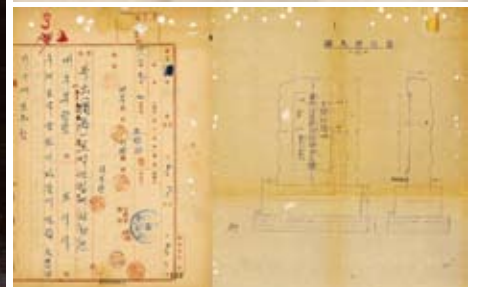
독도 우표(1954, 국가기록원)

이밖에도 독도 영토 표석, 독도 ‘한국령’ 암각서, 독도경비대 경계근무 모습 등의 사진과 체신부에서 발행한 3종의 독도 전경 보통우표(1954)도 전시하고 있어, 국가기록전시관 관람객들의 우리 영토로서 독도의 중요성 인식 및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독도 영토 표석(1954, 국가기록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 서울대 규장각)



독도 표석 건립에 관한 건(1954, 국가기록원)

ICA 집행이사회 2016년 서울총회 성공개최 논의



ICA 집행이사회 회의 모습



회의에 참석한 ICA 회원들

국가기록원은 2014년 4월 7일~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ICA 집행이사회 및 프로그램위원회에 2016년 ICA 서울총회 개최국 자격으로 참석해 총회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계획, 학술회의 내용구상, 재정확보 방안 등에 관해 포괄적 협의를 한데 이어, 서울총회 프로그램위원회(Congress Programme Committee) 위원을 인선했다.

김재순 국가기록원 표준협력 과장은“2016년 9월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서울총회를 역대 어느 총회보다 독창적이고 역동적인 콘텐츠와 우수한 한국 기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글로벌 축제로 만들겠다”며 집행이사회의 적극적 지원 및 협력을 당부했다.

지난 2011년 10월 28일 스페인에서 개최된 ICA 본회의에서 2016년 ICA 총회 개최지로 확정된 이 후, 우리나라는 준비기획단 구성을 통해 기본구상 및 로드맵 수립, ICA와 양해각서 체결, 공식홈페이지 구축, 지속적 국내외 홍보 등 성공적 총회 개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국내 5개 출판사와 디지털자료 위탁보존 업무협약 체결

국립중앙도서관이 올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국가 지식정보자원 망라적 아카이빙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립중앙도서관은 5월 22일(목) 도서출판 은행나무, (주)도서출판 한길사, 인물과사상사, 청림출판(주), 한국학술정보(주) 등 국내 5개 출판사와 디지털자료 위탁보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개 출판사는 한국학술정보 6,300종을 비롯 한길사 900종, 은행나무 600종, 청림출판 500종, 인물과사상사 310종 등 도서 출간을 위한 총 8,610종, 10TB에 달하는 디지털 파일을 국립중앙도서관에 위탁 보존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주)김영사와의 디지털자료 위탁 보존 업무협약에 이어 두 번째. 김영사는 3,000여 권의 디지털 파일을 국립중앙도서관에 위탁했다.

출판사들은 도서를 출간할 때 출판편집 소프트웨어(QuarkXpress, Indesign 등)를 사용하여 제작한 출판편집용 디지털 파일을 재판 발행이나 전자책 출판 등 차후 활용에 대비하여 보관한다. 그러나 개별 출판사들이 이러한 디지털 파일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출판편집용 디지털 파일도 국가의 중요한 지식정보자원으로서 보존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내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료에 대한 위탁 보존을 위한 협약을 적극 추진해왔다.

협약에 의해 위탁되는 디지털자료는 외부와 물리적으로 차단된 별도의 보존 장치에 저장된다. 특히 무단 접근·복제·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관련 인적·기술적 보호조치가 이루어져 출판사의 요청에 의하지 않고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출판사는 디지털자료 보관에 따른 기술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재판 발행이나 전자책 출판 등을 위해 디지털 파일을 언제든지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원천파일의 보존을 통해 전자출판을 활성화하는 한편, 당대의 문화유산이 누락 없이 후대에까지 전승될 수 있는 망라적 수집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규장각과 장서각 기록문화유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조선왕조 의궤, 승정원일기 등 DB 구축 대상 문헌

문화재청은 정부3.0과 문화융성을 위해,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중요 기록유산에 대한 DB(Data base) 구축과 이를 연계·통합하여 대국민 서비스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으로 추진되는데, 올해는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기존의 DB 자료와 연계 가능한 조선왕조 의궤, 승정원일기, 동궁일기, 왕실족보, 종묘 관련 고문서 등 조선왕실도서 약 281,558면을 DB 구축한다.

DB 구축 사업은 ① 원문이미지 → ② 원문텍스트* → ③ 표점텍스트** 구축 순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구축된 자료는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내 '조선왕실 전자도서관(가칭)'을 개설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대국민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 원문텍스트 : 국민이 특정 인물과 사건 등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DB 방법

** 표점텍스트 :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방점과 문장을 구분하는 DB 방법

그동안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는 한정적인 예산으로 인하여, 원문이미지, 원문텍스트, 표점텍스트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지 못해 불완전한 형태로 서비스됨에 따라 국민이 접근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구축된 DB 자료가 궁궐, 향교, 서원 등의 문화행사 고증자료와 교육·학술자료로 활용되어 조선왕실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인문학 대중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문화유산3.0의 기관 간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문화유산 소장처를 비롯한 관계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기록문화유산 연계 기관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구축된 기록문화유산 DB 자료가 문화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재청, 전국의 중요 금석문 문화재 탁본 조사 추진



탁본 조사 모습(2013년)

문화재청은 불교중앙박물관과 함께 올해부터 전국의 중요 금석문 문화재의 원형 기록·보존과 전시·활용을 위한 탁본 조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탁본 조사 첫해인 올해는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보물 제251호 칠곡 선봉사 대각국사비 등 경북에 있는 중요 금석문 40여 점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 대상은 ▲역사적 가치가 높고 명문기록 보존이 시급한 금석문 ▲역사적 중요 인물의 내용을 담은 금석문 ▲글씨를 쓴 사람이 유명한 서예가나 문장가인 금석문을 우선 포함하였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최고의 금석문 탁본 전문가인 흥선 스님(직지사 주지)의 주도 아래, 전통 방식으로 만든 한지에 우리나라 금석문의 예술성과 역사기록을 표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본격적인 탁본 조사에 앞서 고대부터 1945년 이전까지 제작된 금석문 총 11,500여 건에 대한 자세한 목록을 수록한 『금석문 조사 총람집』 I ~ III 권을 발간하여 관련 연구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이번 탁본 조사의 결과물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과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의 누리집(http://gsm.nricp.go.kr)에 탑재하여 온라인으로 대국민 서비스하고, 탁본 원본은 전시와 교육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한제국 국새 60여 년 만에 환수, 특별전 개최



황제지보(皇帝之寶)



수강태황제보(壽康太皇帝寶)

문화재청은 지난 4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반환된 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과(類, 인장을 세는 단위)를 공개하는 특별전을 5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이번에 환수하여 공개되는 인장 9과는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후 만든 국새 ‘황제지보(皇帝之寶)’ ▲순종이 고종에게 존호를 올리면서 만든 어보 ‘수강태황제보(壽康太皇帝寶)’ 등 대한제국 황실과 조선 왕실의 것이다. 이는 대한제국 시기 황제국의 위엄을 널리 알리고, 자주적인 국가를 세우고자 노력했던 당시의 노력이 담겨 있는 귀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이외에도 현종(憲宗, 1827~1849년)이 개인적으로 수집하여 사용하였던 조선왕실의 사인(私印)인 ‘보소당(寶蘇堂)의 인장’ 등도 함께 환수되어 공개된다.

이는 대한민국 문화재청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의 공조 끝에 지난해 압수한 것이다. 문화재청 등 정부기관과 양국 국회의원, 국내외 민간단체 등의 노력으로 애초 반환 시기보다 2개월 정도 앞당겼으며, 반환 시기는 미국 버락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II)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일정에 맞추었다. 지난 4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서 인장 9과를 넘겨받아 반환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문화재청은 이번 특별전이, 격동의 시기에 불행하게도 불법 반출되었지만 한·미 양국 정부의 공조를 통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우리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길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목판, 지식의 숲을 거닐다” 특별전 개최



목판 지식의 숲을 거닐다 특별전 포스터

국립민속박물관은 한국국학진흥원과 2014년 5월 16일(금)부터 6월 23일(월)까지 “목판, 지식의 숲을 거닐다” 공동기획전을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하였다.

우리나라 목판 기술의 발달과 이를 통한 지식의 보급, 정보의 유통은 우리 생활사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월,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유교책판 718종 64,226장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 후보로 확정되기도 하였다. 양 기관은 이러한 생활사적 의미와 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되짚어 보고, 그 가치를 널리 공유하고자 이번 기획전을 공동기획하였다. 전시에는 ‘대동운부군옥 목판(보물 제878호)’ 등의 책판을 비롯하여 ‘도산서원 현판’, ‘능화판’ 같은 생활목판 등에 이르기까지 목판 관련 자료 총 250여 점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는 지식정보화의 시대에 발맞춰 목판이 지닌 지식의 확산과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목판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심으로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가 글과 그림이 되어 나무에 새겨지며, 다시 종이에 찍혀 책이 되고 세상에 전해지는 순서로 구성되었다.



포은선생문집 목판(圃隱先生文集 木板, 임고서원 소장, 1806년)



1부 ‘종이에 쓰다’는 우리의 기록문화에 대한 부분을 다시 생각하는 공간이다. 역사적 사건이나 현상 뿐 아니라 사물과 생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부단히 붓에 먹물을 묻혀 종이에 한 자씩 정성껏 쓰고, 보고, 그렸던 자료를 통해 기록의 의미와 노력을 살펴보고, 기록문화의 정수인 책의 의미도 되짚어 본다.

2부 ‘나무에 새기다’에서는 손으로 쓰던 기록이 나무, 금속, 돌에 새겨짐으로서 갖는 판각의 의미와 이를 통해 책이 만들어 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조선 후기 책의 간행 과정 및 비용 등을 알 수 있는 간소일기(刊所日記)를 비롯하여, 도산서원에서 책을 간행하기 위해 오늘날의 간행위원회처럼 임원명단을 기록한 파록(爬錄)은 물론, 방문 기록인 시도기, 물품 사용 내역과 비용을 적은 하기(下記), 책의 배포 목록인 반책기(頒冊記)도 전시한다.

3부 ‘세상에 전하다’는 기록을 목판에 새겨 전달하는 방식이 갖는 확산과 보존의 의미를 짚어 본다. 목판은 선대 사람들이 후세에 지식을 전하기 위한 지혜이자 노력이었다. 기록이나 문집을 인출한 판을 보관하는 장판각(藏板閣)은 선비 집안의 묵향을 간직하면서 그 속에 다양한 지식이 담겨진 지식정보센터였다. 3부는 전시장을 목판이 즐비한 장판각처럼 꾸며 놓아 관람자들은 그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문집(文集)·족보(族譜)·지리지(地理誌)·의서(醫書) 등의 책과 목판은 물론, 포은 정몽주(鄭夢周 1337~1392) 영정, 괴담(槐潭) 배상열(裴相說 1759~1789)이 제작한 훈천의, 일제강점기에 일본식 화로[罏爐裏]의 외곽 보호 용도로 변형된 오료행실도 목판 등을 관찰해 볼 수 있다.

4부 ‘생활에 묻어나다’에서는 건물의 편액이나 다식판, 떡살, 금박판, 부적판 등과 같이 사람들의 정성과 바람을 담은 글과 문양을 새긴 목판의 다양한 쓰임새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상자 안쪽 면에 꽃나비 등이 찍혀진 능화문(菱花紋) 종이가 발라진 색실상자, 능화문을 찍은 종이가 발라져 있는 의결이장 등 생활용품의 장식을 위한 문양인출 등 목판의 다양한 사용 흔적을 볼 수 있다.



| 영국 |

중앙 정부 트윗 및 비디오 웹아카이빙



영국 국가기록원은 2015년 5월 8일부터 영국 중앙정부 공식 트위터 및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에서 생산되는 트윗과 유튜브 비디오의 웹아카이빙을 실시한다. 소셜 미디어를 영국 정부 웹아카이브로 캡처하는 것은 복잡한 기술적 프로젝트로, 국가기록원은 공공 기록인 소셜미디어를 영구적으로 보존할 계획이다.

● 역사 기록의 일부

영국 정부 소셜미디어 아카이브는 7,000개 이상의 비디오(2006~2014년 초)와 65,000개 이상의 트윗(2008~2013.09)을 포함하고 있다. 아카이브는 Queen's Diamond Jubilee, 2012 런던 올림픽, 예산, 연합정부 형성 등과 같은 근대 중요 사건을 포함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는 사업 홍보를 위한 유튜브와 정책 설명을 위한 트위터 사용 용도로 이용되며, 정부 부서의 중요한 소통수단으로 점차 자리잡고 있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소셜미디어 아카이빙 사업에 지속적 관심을 갖고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도전에 대처를 하고 있다. 원장 직무대리인 Clem Brohier는 현재 및 미래 세대들이 역사적인 사건을 트윗을 통해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전했다.

● 웹아카이브 확장

영국 국가기록원은 아카이브 내용 보존 및 원본 맥락 형태로 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인터넷 메모리 재단과 협업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 웹아카이브를 통해 아카이브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2003년 이후 영국 국가기록원은 웹페이지, 문서, 인터랙티브 게임 등을 포함한 영국 정부에 의해 온라인으로 출판된 30억건 이상의 자료를 아카이브하고 있으며, 이제 소셜미디어를 디지털 아카이브에 영역에 포함하였다. 향후 이와 관련된 분야는 점점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미국 |

공보부 새로운 온라인 트레이닝 제공



국가기록청 공보부는 공보부로 제출되는 디지털 자료를 위한 무료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파티시페이팅 에이전시 직원들은 공개키(Public Key Infrastructure)를 이용해 자료의 전자적 제출을 위한 간소한 기술을 배우고 실습할 수 있게 되었다.

강의 시리즈는 2014년 3월 6일 공보부 최초 공개키 컨퍼런스에서 녹화되었다. 이 세션은 공개키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관심 있는 기관들에게 유익한 도움을 주며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공개키 소개
- 질의응답
- PKI 사용에 관한 실제 사례 발표(환경 보호부 및 건강 연구소)
- 자료 제출 및 디지털 서명에 관한 피드백 서비스가 가능한 새로운 웹포털 소개

● 공보부와 공개키

공보부는 공개키 기술을 사용해 문서의 디지털 이관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와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장비들은 연방정부가 원본 종이 문서나 복사본이 아니라 디지털로 PKCS #7 포맷 형태로 문서를 서명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적으로 공보부로 보낼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기관 예산 및 종이 절감에도 효과적이다.

2013년, 286,000건 이상의 종이문서가 저장되었고 디지털 형태로 공보부에 제출되었다. 공보부는 모든 기관이 디지털 제출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전화응대 등을 통해 실무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공보부 인증기 프로그램은 정부 인쇄국과 일반 서비스 행정 부서와 함께 운영하며 점점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0년 이후 디지털로 제출되는 문서는 29%에서 41%로 급증하였다.

공보부(연방 정부 매일 신문)는 국가기록원에 의해 매일 간행되는 법적 신문으로, 연방정부 규정, 제안된 규칙 및 공공 알림, 시행문, 선언문, 기타 대통령 문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에게 생산되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시키고, 다양한 정부 혜택을 누리고 기금을 얻는 기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일본 |

국립공문서관 2014년 복제물 제작 대상 발표



국립공문서관에서는 2014년 4월에 올해의 복제물 제작대상을 발표하였다. 대상은 공문록(公文録), 대승원사잡사기(大乘院社雜事記) 등 일본의 중요 문화재와 내각문고, 법령의 공포원본인 어서명원본(御署名原本) 130만컷과 각의사무차관(閣議事務次官)회의자료 등 80만컷과 에도막부의 명령에 의해 작성된 성곽도 등 100건이 그 대상이다. 상세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 http://www.archives.go.jp/about/activity/background_tour.html

국립공문서관 1일 체험 투어 실시

국립공문서관에서는 “당신도 아키비스트를 목표로 삼아보세요!”라는 테마로 국립공문서관 1일 체험 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작년 2013년 7월에 처음 실시하여 초등학교생과 중·고등학생, 교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통해 대상인원을 모집하여 국립공문서관 소개 및 서고 견학, 복원업무 견학 및 편철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별로 프로그램 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 http://www.archives.go.jp/about/activity/background_tour.html

일본 아카이브즈 학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관련 강연회 개최



일본은 2005년 4월 1일에 전면 실시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빅 데이터 시대를 맞아 ‘정보’가 제4의 경영자원이라고 일컬어지는 지금, 그 활용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개인정보의 이용을 둘러싼 동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JR동일본(회사)에서는 역의 승객정보를 빅 데이터로 판매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여론의 분위기상 포기한 경우도 있으며, 법률 개정을 계기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기대도 생기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3년 6월 ‘세계최첨단 IT국가 창조선언’을 내각회의에서 결정하고 “일본부흥전략” 중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제도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결정하고 2015년 국회에 법안제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 아카이브즈 학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대한 정책동향과 그 영향 및 과제에 대한 강연을 실시한다. ※ <http://www.jsas.info/modules/news/>

- 일 시 : 2014년 7월 4일(15:00~17:00)
- 장 소 : 주오우(中央)대학 스루가다이(駿河台)기념관 670호
- 주 제 :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을 위한 정책동향과 그 영향 및 과제
- 발표자 : 이시카오리(石井夏生利) 츠크바(筑波)대학 도서관정보미디어계 준교수
- 주 최 : ARMA International 도쿄지부

Book 새로 나온 책

National Archives of Korea

국가기록원 발간 도서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 Ⅷ | 국가기록원

이번에 발간한 건축도면 해제집은 국가기록원 소장 도면 중 1906년 이후의 대한제국기 및 일제강점기 행정시설 도면을 해제하고 주요 도면 350매를 수록하였다.

해제집에 소개된 도면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때 사라진 건물이기 때문에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특히, 1907년에서 1910년에 걸친 행정시설의 신축 계획과정과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도면이 수록되었다.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가이드 Ⅲ | 국가기록원

이번에 발간한 소장 기록물 가이드는 지난 2012년 서울 인천 등 6개 시·도(시·군·구 포함) 기록물 안내서에 이어 두 번째로 10개 시·도가 생산한 기록물 43만권을 조직과 업무에 따라 143개 기록물군과 3,213개 계열로 분류하고 기록물 생산시기와 주요 내용, 매체별 수량 등 기술서를 수록했다.

국내 일반 도서



원문 사료로 읽는 한국 근대사

최익현 외 지음 | 이주명 편역 | 필맥 | 2014-05-20 | 반양장본 | 448쪽 | 225×153mm | 640g | ISBN(13) : 9788997751372

한국 근대사의 흐름을 알기 위해 읽어볼 필요가 있는 글들을 모아 놓은 책이다. 1876년과 1945년 사이에 씌어진 28건의 글이 실려 있다. 봉건적 구질서 붕괴, 외세의 내침, 국권 상실, 국내외 독립운동, 독립 성취, 좌우익 분열 등 그 시대 우리 민족의 파란만장했던 역사를 당대인들의 생생한 글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다.

조선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임유경 | 역사의아침 | 2014-05-30 | 반양장본 | 248쪽 | 210×140mm | 325g | ISBN(13) : 9788993119718

조선시대 여성들이 직접 쓴 편지와 수필, 주변 인물들이 남겨놓은 글을 엮어 조선 여성들의 삶을 들여다본다. 책 속에는 기생이나 다모와 같은 천한 직업의 여성부터 양반 규슈와 고귀한 왕실의 공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등장하고 있다.



명성황후 최후의 날

김영수 | 말글빛남 | 2014-05-08 | 272쪽 | 223×152mm (A5신) | 381g | ISBN(13) : 9788992114936

명성황후 시해 현장을 목격한 유일한 서양인 러시아 건축사 '세레진 사바쨌'이 기록한 을미사변, 그 하루의 기억. 1895년 10월 8일 새벽 5시 45분경 명성황후 시해 당시 유일한 서양인 목격자로 알려진 러시아 건축사 사바쨌이 써 내려간 그 마지막 날 24시간의 기록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조선 왕들, 금주령을 내리다

정구선 | 팬덤북스 | 2014-05-09 | 반양장본 | 212쪽 | 210×145mm | 355g | ISBN(13) : 9788994792842

『조선왕조실록』으로 들여다보는 조선의 술 문화. 국상 중에 술을 마셔 파면된 관리들, 임금에게 술 마시라고 강권하는 신하들, 소주에 산초를 타서 마신 세자의 스승, 술에 취하여 임금을 '너'라고 부른 정승까지. 조선시대의 천태만상 음주 풍습을 들여다본다.



정호기

야마모토 다다사부로(지은이) | 이은옥(옮긴이) | 이항 · 엔도 기미오 · 김동진(해제) | 에이도스 | 2014-04-14 | 양장본 | 216쪽 | 195×208mm | 610g | ISBN(13) : 9791185415024

1917년 11월 일본의 사업가 야마모토 다다사부로가 조선에서 벌인 사냥에 대한 기록이다. 지금은 멸절된 우리나라의 호랑이와 표범 등 야생동물에 대한 기록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의 생활상과 원산, 함흥, 금강산, 석왕사, 북청 등 북녘 땅 풍경, 조선의 명포수로 알려진 강용근, 이윤화, 최순원 등 사냥꾼들 사진 등 희귀한 자료가 담겨 있다.

제주도 濟州島

이즈미 세이치(지은이) | 김종철(옮긴이) | 여름언덕 | 2014-05-25 | 양장본 | 416쪽 | 225×152mm (A5신) | 749g | ISBN(13) : 9791155100226

일본 문화인류학자의 30년에 걸친 제주도 보고서. 제주 섬의 지질과 동식물 분포 같은 자연환경에 서부터 신화와 역사, 사람들의 의식주를 비롯해 종교, 언어, 풍습, 상례 · 혼례 · 제례 등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섬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